

韓國國語教育全史(上)

朴 鵬 培 著

新芻版 606面. 1987. 11. 大韓教科書株式會社

최 운 식

(한국교원대 교수, 국어교육학)

국어 교육은 우리 민족의 생활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말과 글을 의도적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부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국어과 교육의 역사는 이제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동안에 국어과 교육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 발전의 과정을 아는 일은 국어과 교육의 오늘의 좌표를 알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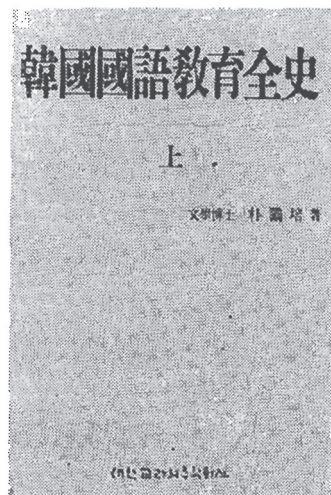
이번에 출간된 「韓國國語教育全史」(上)은 개화기로부터 광복 운동기, 미군정기까지의 국어과 교육의 형성,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저(力著)이다. 국어과 교육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저자의 국어 교육관과 사관(史觀)에 따라 체계화시킨 이 책은 오로지 국어과 교육 연구에만 일생을 바쳐 온 저자가 자신의 생애를 걸고 연구한 업적이라는 데에도 뜻이 있지만, 이 분야 최초의 연구서라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이 책의 '自序'에서 저자는 한국 국어 교육사의 시대를 8시대로 구분하고 시대별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명실상부한 「한국국어교육전사」를 쓸 계획을 밝혔다. 이 책은 이러한 계획에서 집필된 책의 상권으로 개화기, 일제기, 미군정기만을 다루었다. 과도기와 제 1차 교육 과정기부터 제 5차

교육 과정기를 다룰 하권은 현재 집필 중이다 한다.

이 책의 제 I 장 개화기 국어과 교육에서 저자는 개화기를 ‘우리의 뜻과 정취를 우리의 말과 글로 나타낼 수 있도록 公的·私的·사회적 장치와 방법을 개발하고 운영하던 시기’로 규정하고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25~30년 간의 국어과 교육 제도, 교육 과정, 교재, 교과 운영과 교수—학습의 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국어과 교육이 1885년에 민간 운동으로 출발하여 1894년에 정부 주도로 발전했다가 1906년부터 일제 통감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밝히고,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교육 과정은 영성한 체제와 내용으로 출발해서 조밀하고 충실한 체제와 내용으로 발전되다가 1908년 일어과의 신설에 따라 ‘국어’로 되어 있던 독립 교과가 ‘국어 및 한문’이란 병합 교과로 격하되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의 발행 제도와 당시의 상황, 「국민 소학 독본」을 비롯한 각종 국어과 교재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시기의 국어과 학습이 국문 보급과 계몽, 정신 교육 위주의 국한문 교용(交用)의 언문일치 교육이었음을 밝히고, 문자·속어·어구 위주의 학습이었던 것이 후기로 가면서 두뇌 개발과 인격 형성을 돕기 위한 독서와 문학 학습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에 관한 개화기의 문헌들을 모아 소개하고 설명하여 이것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 II 장 일제기의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 시기의 국어과 교육에 대한 제도와 교육 과정을 일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초등 학교 및 중학교용 국어(조선어)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근대 문학 운동의 연원과 흐름, 한국 문학 교육 양상을 사적으로 고찰하여 한국 근대 문학 운동과 문학 교육의 관계를 밝혀 놓았다. 또, 국자·국문 연구와 그 보급 운동을 알아 보기 위하여 한글 보급 운동의 연원과 흐름, 한글 보급과 문화 운동으로서의 국어과 교육, 민간인 학회의 국어 연구와 국어 교육 운동, 일제 말기의 총괄적 조선 어문 말살 정책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교과 운영과 교수—학습의 방법을 알아 보기 위하여는 교과 내



용과 교수 방법 교수의 운영 방법, 국어과 의지도 내용, 조선어 교육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다.

제Ⅲ장 미군정기의 국어과 교육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군정주도적(軍政主導的) 장치와 민간주도적 장치에 대하여 고찰한 다음, 이 시기의 교육 과정, 교재, 학술 문헌, 교과 운영과 교수—학습의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교육 과정 분석에서는 초등·중등 학교 국어과 교수 요목을 분석하였다. 교재 분석에서는 「한글 첫걸음」의 29종의 기초 교

과서의 서지적(書誌的) 사항과 내용을 분석하고, 정규 국어 교과서인 「초등 국어 교본」과 「중등 국어 교본」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술 문헌 분석에서는 당시의 국어 교육 관계 문헌을 저서와 논문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해설하여 당시의 상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교과 운영과 교수—학습의 방법에서는 교과 운영의 제도, 교육 과정, 학술, 교재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교수—학습의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시기의 국어과 교육과 관련된 학제를 비롯하여 국어과 교육 과정, 교재, 교과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 등의 시대적 전개와 발전·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이것은 본격적인 국어과 교육의 출발 상황과 전개, 광복 운동기에 국어 말살 정책을 편 일제로부터 받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이를 이겨내기 위한 국어 연구와 보급 운동의 양상을 알 수 있게 해 주고, 광복 후 미군정기의 국어과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알게 해 준다. 또, 문학 교육이 국어과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과 이의 전개 양상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은 한국 국어과 교육의 기반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것이라 하겠다.

개화기와 미군정기의 국어과 교과서의 분석과 국어과 교육 관계 문헌의 소개와 해설은 당시의 국어과 교육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헌 자료의 목록이나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여 애쓰는 후학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교과 교육에 관심과 의욕이 고조되기 시작한 최근의 국어과 교육계의 큰 경사요 쾌거라 하겠다.

이 책에는 한글 세대인 젊은이들이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용어와 문장이 더러 보이는데, 이것은 '옥에 티' 격이라 하겠다.

개화기에 시작되어 광복 운동기에 위축되었다가 다시 소생한 국어과 교육이 그 후에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책 하권의 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과도기와 제 1차 교육 과정기로부터 앞으로 시행될 제 5차 교육 과정기까지를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한 이 책 하권이 조속한 시일내에 출간되어 한국 국어과 교육의 현재의 위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국어학 발전사

권 재 선 지음

4×6 배판 256면(上)+501면(下). 1987. 11. 한국고서사

兪 昌 均
(계명대 교수, 국어학)

우리는 오늘날까지 國語學史 또는 이에 준하는 많은 論著들이 나왔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 많은 論著들은 그것이 저술된 시대에 따라 제각기 특